

이웃 갈등 부르는 '층간소음' 폭증

제주지역 지난해 244건 신고 접수... 역대 최대 4년새 3곱절... 코로나로 '집콕 생활'이 결정적

지난해 제주지역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노농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마포구갑)이 환경부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16년 79건, 2017년 121건, 2018년 159건, 2019년 114건, 2020년 244건이다. 올해

에도 8월 기준 206건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오전 0시 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부부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제주에서도 지난 2019년 12월 15일 오후 9시쯤 제주시에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위층에 올라가 해코지를 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흥기로 협박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 3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웃사이센터 고객만족도 점수는 지난 2019년 기준으로 59.4점에 그치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매년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60점도 채 되지 않고 있어 센터가 있으나 마나"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시급한 민생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정부가 손 놓고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송은범기자

필로폰 투약 40대 실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 대해 실태가 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1일 이씨가 임의로 제출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 29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이 파도를 타고 있다. 이상국기자

경찰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입방아'

28일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 낸 경찰 입건 '집안내부부터 단속해라' 비난 목소리 비등

현직 제주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공적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시 도평동의 한 도로에서 서부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A경사의 SUV가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피해차량이

충격으로 인해 또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피해 차량 중 1대엔 두살배기 아이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및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서부경찰서 예하 모 지구대 소속 B순경이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인 경찰 음주감지기에 적발됐다. B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에 미치지 않아 훈방조치가 이뤄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6일에는 제주시 이도2동 제주제일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제주경찰청 소속 C경위가 술을 마신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A경위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경찰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집안 내부'부터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경찰 연도별 징계 현황을 보면 >2017년 20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지난해 4건이다. 유형별로는 >직무태만 11건 >품위손상 등 9건 >성비위 5건 >음주운전 5건 등이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14명, 경감 8명 등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음주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주간단속에 나서며 헬기까지 동원, 경고 방송을 하기도 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중학생 피살사건 백광석·김시남 1심 공판 "내가 했잖아" 책임 떠넘기며 언쟁

피해자 어머니 출석 진술 "아들의 원한 풀 수 있도록 최고형 내려달라" 눈물 호소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받고 있는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법정에서 낯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얼굴을 붉혔다. 서로에게 '살인의 책임'을 떠넘기면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와 김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16)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A군은 백씨의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아들이다. 백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김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날 백씨는 피고인인 동시에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백씨는 A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범인이

김씨라고 주장한 반면 김씨는 백씨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사실상 '대질심문'이 이뤄진 것이다. 백씨가 증인석에 앉자 김씨는 "죽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으면 거짓말 하면 안된다"며 "형님(백광석)이 가자고 해서 (범행 현장에) 따라온 것 뿐이지 목을 조른 것은 형님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백씨는 "A군을 제압해달라고만 했을 뿐이지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뒤 재판장을 향해 "김시남이 100% 죽였다. 나는 죽어도 상관 없다. 다만 죽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바른 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A군의 어머니 B씨도 출석해 피해자 측 진술을 했다. B씨는 "16살 꽃다운 나이에 꽃 한 번 피지 못하고 하늘로 간 아들의 원한을 풀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지... 아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도내 공공앱 8개 중 4개 '폐기'

앱마다 수천만원 투입했지만 활용 저조

제주에서 제작된 공공앱이 줄줄이 폐기되고 있다. 수천만원의 세금이 들었지만 정작 다운로드 수는 공공 앱을 모두 합쳐 6500건을 겨우 웃돌아 현재 낭비되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공앱 8개 중 4개가 폐기돼 폐기율 50%를 기록, 인천교육청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천교육청 공공앱 폐기율은 66.7%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서비스 중인 공공앱을 전자정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의 자료로 측정하고 있다.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을 폐기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가 제작한 공공앱 중 '제주시 복지앱', '제주시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사전'이

폐기대상으로 결정됐다. 제작비용으로 각각 1750만원, 1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2630건, 3855건에 머물며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또 제주도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2개 중 1개가 폐기됐다. 교육청 소속 제주교육박물관이 개발한 '사이버 제주 교육박물관'의 다운로드 수가 41건으로 매우 저조해졌다. 제작비용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공란으로 남았다. 교육박물관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 제작을 맡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내용이 중복돼 지난해 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앱 운영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도가 개발한 '제주 4·3길', 서귀포시에서 개발한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 공공앱은 자료 미제출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어 폐기 대상으로 정해졌다. 강민성기자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탈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독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각정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 굴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굴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년생
·레드향(무숙) 1, 4년생	·궁천 벤이지(오래배나)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립조생 5년생	·황금향 1, 2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그랜드보청기

한가위맞이 사은대행사!!
선착순, 20만원 상당 녹음증정

9월 한달간 배터리 ₩20,000 → ₩9,000 할인행사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충물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경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문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